

壬申年을 보내며

See the old Year Out

ESSAY

金永雄 / 종합건축사사무소 진원·토우

by Kim Young - Ung

1992년 壬申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11월 초까지만 해도 2달쯤 남았다고 그래도 마음의 여유가 있었는데 막상 12월이 되고보니 한달 남았다기 보다는 한해가 다갔다는 생각이 앞선다.

다른 사무실도 마찬가지로 당장 연말 걱정이 앞선다.

전반기에 사무실을 유지할 정도의 프로젝트가 수주되어 이제는 열심히 일만 하면 되겠지! 하고 안심하였다니 웬걸 두 프로젝트는 허가 반려만 받고서 도통 진행할 생각을 안하고 있고, 8월 말까지로 계약되었던 일은 자꾸 지연이 되어 내년 1월까지 가야 끝이 날 것 같고, 또 하나의 프로젝트는 계획안이 완료되어 승인을 요청하였는데 내부 사정으로 4개월이 지나도 승인통보가 없다. 이러다가 큰일이다 싶어 여름부터 현상설계에 참여하여 3개의 프로젝트에 작품을 제출하여 그중 1개 Project에 당선되어 겨우 후반기에 들어섰는데 벌써 1년이 지나다니 참 빠르기도 하다.

금년 한해는 사무실보다는 개인적으로 참 바쁜 한해였다.

서울건축사회 간사를 맡다보니 한달에 두세번씩 꼬박꼬박 회의에 참석하고 또 연구과제가 있었다.

원래는 매월 1회의 회의가 원칙이지만 임시회의, 간담회, 여기에 총회 등이 겹치다 보면 결국 두세번씩 된다. 회의를 한다고 왔다 갔다 하다보면 사실 그날 하루는 다가게 마련이다.

여기에 국제위원회를 맡게되어 동경 건축사회와 자매결연 조인식과 일본 청년 건축가의 간담회 등등, 준비하고 진행하다보면 그것도 바쁘게 된다. 또 결산위원회, 예산위원회까지 겹친다.

협회의 일이 곧 우리 전체의 일이고 책임을 맡았을 때 열심히 하여야겠다고 생각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참석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도 많이 하였다고 생각하지만 제약도 많았고 또 연구에 할애되는 시간의 역부족을 실감케 했다.

후반기 들어 현상설계한다고 밤늦게 들어와서 다음날 새벽에 임시간사 회의가 있을 때는 정말 잠이 부족하여 일이십분 늦기도 하여 미안하기도 하였다.

10월 들어서는 협회에 지회와 본부의 2번의 선거를 치르게 되어 본의 아니게 불려 다니다 보니 몸도 바쁘지만 이것 저것 겹쳐서 마음이 더 조금씩 질때는 결국 모든 부분이 다 소홀한 것 같아 미안하기까지 하였다.

선거란 당사자는 초조하고 힘들겠지만 회원들은 이때 만큼 대접받는 경우도 드물어 기분좋은 순순간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 좋은 공약도 많고 또 공약대로 된다면 여건이 훨씬 나아질 것 같아서 장미빛 희망도 가져보게 되니 즐겁고, 선거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사람의 마음이 끝나고 나서 일정시간이 흐르면 거울같이 투명하게 나타나게 되어 혼자 웃게되는 경우가 그렇다.

이제 새로운 회장단이 탄생하였으니 이 어려운 여건을 타개할 것을 기대해 본다.

후반기 들어 만나는 소장마다 어렵다고 한다.

대형사무실이나 개설한지가 오래된 사무실 보다는 최근 2~3년 사이에 개업한 젊은 소장들의 어려움이 더 큰 것 같다.

언젠가 후배 소장들과 모임이 있어 저녁을 같이 하게 되었다.

『요즈음 어떠냐?』

『죽을 맛입니다. 도대체 일이 다 어디로 갔는지 영 보이질 않습니다.』

『인원이 몇명인데?』

『미안합니다만 거기엔 답변을 유보하겠습니다.』

무슨 소린가? 인원이 몇인가에 답변을 유보하겠다고 하니.....

얼른 이해가 가지 않아서 옆의 후배에게 무슨 얘기냐고 물으니 글썩요, 잘 모르겠지만 한 두명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더이상 묻지를 못했다. 내년에 허가 유보 조치도 완전히 풀리고 건설경기 부양 조치라도 생기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하며 버틴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의 여건에서 볼때 내년도에 건설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객관적 징후는 오히려 없는 것 같다. 모든 산업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맞거나 수요가 공급을 앞지를 때 활발해 질텐데 건축은 이미 토지초과이득세 등의 영향으로 최근 2~3년 동안 건설된 물량이 공급을 상회하였고 경기위축으로 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니 과연 누가 투자를 하겠다고 나설지 의문이다.

주거부문까지 내년에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속에 분양이 저조하여 착공을 미루고 있으니 말이다.

최근에 모두 어렵다보니 입찰이나 덤핑에 대한 우려가 높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건축사 모두 합심하여 건축에 대한 애정과 건전한 정신으로 단 하나의 프로젝트라도 덤핑이나 가격 입찰에 참가하여 스스로 보수액을 낮추어서는 모두가 어렵게 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물량이 감소될 때는 오히려 보수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하여야만 나 하나가 아닌 우리가 버틸 수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우선 급한데 편한 소리 한다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한사람 한사람 보수액을 낮추는 경쟁을 하다보면 그끝이 어디일 것인가 묻지 않아도 짐작하지 않겠는가!



최근에 모두 어렵다보니 입찰이나 덤핑에 대한 우려가 높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건축사 모두 합심하여 건축에 대한 애정과 건전한 정신으로 단 하나의 프로젝트라도 덤핑이나 가격 입찰에 참가하여 스스로 보수액을 낮추어서는 모두가 어렵게 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물량이 감소될 때는 오히려 보수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하여야만 나 하나가 아닌 우리가 버틸 수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우선 급한데 편한 소리 한다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한사람 한사람 보수액을 낮추는 경쟁을 하다보면 그끝이 어디일 것인가 묻지 않아도 짐작하지 않겠는가



이 어려운 여건은 건설업계도 비슷한 입장이다. 전체적인 수주 물량은 줄어들었고 금년도 건설업 면허가 개방이 되어 내년도 건설업체수가 현재의 약 2배에 이르러 치열한 수주경쟁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도 어김없이 덤핑으로 인한 공사 진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또, 관공사 중심으로 내역 입찰제를 채택하여 모든 수량은 주어지고 단가를 조정하여 최저가 낙찰이 시행될 것으로 보아 더더욱 가격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고 있다. 어떤이는 내역 입찰제를 실시하다 보니 과거에는 입찰전에 설계도면이라도 검토하여 일부는 산출하고 일부는 경험에 의한 금액이나마 맞추어 보았으나 수량이 주어지고 정산한다 하니 기술진 들이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도면 검토는 아예 뒷전이고 산술적인 수치만 가지고 씨름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가격 경쟁과 도면 경시는 결국 기술발전이 오히려 후퇴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또 U.R에 의한 건설부분의 개방화 정책은 세계적인 추세와 압력에 못이겨 결국 받아 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은 우리를 더욱 아프게 한다.

며칠전 우연히 미국에서 오래도록 설계와 시공을 하였던 분과 대화를 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주택을 예로 들어 미국과 우리나라의 여건을 비교하게 되었는데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사항과 차이가 많아 놀라게 되었다.

구체적인 수치는 생략하고 우선 공사비에 있어서 우리의 2/3가격이고 공사기간은 우리의 1/3정도의 기간이며 설계비는 효율은 높지만 공사비가 낮아 결국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물론 이것은 여러가지 다른 여건을 단순 비교하였고, 지명도에 따라 차이도 많고 특히 공사기간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주택을 재산가치로 평가하여 습식위주 공사가 주(主)가되어 길어지고 미국은 목구조 등에 의한 건식공법이 주(主)가 되어 차이가 많지만 어찌되었던 개방이 되었을 시는 대형이나 소형공사를 막론하고 설계나 공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이다.

또 하나 그분의 지적은 우리나라 건설인력의 인건비 수준이 동일시간에 일을 처리하는 양(量)과 질(質)에서 비교할때 미국보다 오히려 높다는 말에는 우리모두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다.

감리 업무에 있어서는 어떠한가? 협회내에서도 소형 건축물의

설계, 감리의 분리 여부에 대하여 논란을 거듭하여 시간을 소비하는 동안 건설기술 관리법은 슬그머니 시공감리 업무범위가 확대되고 감리협회가 설립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입법예고까지 하였고 건축법에서는 관청에서 시행하여야 할 조사 검사업무를 무료봉사이다 싶을 정도의 비용으로 건축사에게 이관되고 있어 내년도 부터는 고질적인 위법·불법사례의 모든 책임을 건축사들이 떠맡게 되어 권한보다는 책임이 더 많아 많은 처벌 사례들이 나올 것이 우려되고 있다. 충분한 보수를 받고서도 열심히 하지 않아 위법사항이 발생하였다면 할말이 없겠으나 정당한 보수도 받지 못하고 처벌만 내린다면 과연 어떻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부터 앞선다.

올 한해를 회고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글을 기대하였는데 생각할 수록 어려운 여건만이 대두되어 일하며 생각하기 보다는 일을 놓고 생각에 몰두하게 된다.

이런한 여건을 여행이나 간다고 해결될 것인가 이러한 때에 나는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해 본다.

우선 먼저 모두 건강하여야 겠다고 생각한다.

옛성현들은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과음(過飲), 과식(過食), 과로(過勞), 과욕(過慾), 과색(過色)을 하지 말라는 5가지 교훈을 남기셨지만 나는 여기에 덧붙여 건강한 정신을 가져야 겠다고 생각한다. 마음이 건강하여야만 건축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애정을 가지고 일을 할 것이고 덤핑이나 입찰을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모두가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의 여유를 가질 것이며, 또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버티고 있으면 어려움이 지나 좋은 여건이 도래할 때 다시 활기찬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합심(合心)하여야 한다고 본다. 사물실 내부는 내부대로 우리 건축사들은 건축사들대로 마음을 합하여야만 어려운 여건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본다. 서로가 나에게 편리한 이익만을 주장하다보면 본질적인 것을 잃게 되고 서로 불신만 커질 뿐이니 그저 하나의 힘으로 집중하여 대처해 나아가야 될 것으로 본다.

세번째로 우리 스스로 더 많은 노력을 하여야 겠다고 생각한다. 물론 경쟁이 심해지면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 그보다는 우리 스스로 도면이나 업무 내용에 소홀했던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고 연구하여 혹 스스로 실추시켰던 건축사의 명예와 사회적 책임이 있다면 노력하여 되찾아야 겠다고 다짐해 본다.